

“80년부터 ‘자본론’ 공부...5월 부채감 책으로 이어져”

‘자본론 노트’ 펴낸 신민구 동신중 교사
현재적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도 기술
중고생 위한 사회과학서적 발간 계획도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자본론’만큼 탁월한 책은 없다고 봅니다. 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민족의 자립적 경제를 위해 자본논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한 책이죠.”

한때는 불온서적으로 읽을 수도, 판매할 수도 없었던 책 가운데 ‘자본론’이 있다. 마르크스가 집필하고 엥겔스가 편집한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나 70-80년대 대학생들 비롯한 젊은이들에게는 ‘사상의 은사’가 됐던 책이다.

최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토대로 읽고, 쓰고, 생각한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이가 있다. 바로 신민구 동신중 교사가 주인공. 평범한 교사인 신 씨가 펴낸 ‘자본론 노트’(심미안)는 오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자본론’ 공부는 80년 중반부터 틈틈이 해왔습니다. 8년 전에는 강신준 씨가 번역한 ‘자본 I’을 몰입해서 공부했어

요. 상품과 화폐 부분에 몰입했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중간에 그만뒀어요. 이후 김수행 씨가 번역한 ‘자본론’을 읽으며 많은 해설서와 자료를 검토했죠.”

그는 알고는 있지만 쉽게는 다가오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 되짚었다. 그의 교직 생활은 본연의 수업과 학생 지도 외에 ‘자본론’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80년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5·18에 대한 부채감이 오랫동안 짓눌렀다”고 한다. 그의 뇌리에는 80년 5월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당시 전남대 사회학과에 재학중이던 그는 용봉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신안동부터 집을 샅샅이 뒤져 대학생들을 잡아간다는 하숙집 주인의 말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 고흥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계엄군인들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

프게 깨달았지요. 이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비록 앞서서 시위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론적으로나마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내 삶을 총화할 수 있는 책을 언젠가는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직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전교조활동과 참교육에 중심을 두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았다.

이번 책 제목이 ‘자본론 노트’인 것처럼 신 교사는 현재적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도

기술하고 있다.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잉여 가치를 놓고 갈등하는 관계다. “자본주의는 교환가치에 따라 자본축적을 끊임없이 하기에, 노동자는 생산수단처럼 자본축적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요지다.

신 교사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문제를 들여다보며 동시에 이런 모습이 외화된 민족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상황과 연동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제3세계 민족모순은 민족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제기구인 IMF, WTO 등은 신제국주의 모습을 보여왔지요. 특히 자주적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는 미국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교직 기간 틈틈이 ‘주류경제학의 비판’ 관련 공부를 할 예정이다.

“향후 책을 낼 때는 좀더 쉽게 저의 언어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실은 ‘자본론 노트’보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본론을 쓰고 싶었는데, 이 작업은 후일을 기대해야겠네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광주에 가면 /크고 작은 세상일 굵어 보며/든든하게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 오지호 화백이 있어/늘 넉넉하고 상상하게 가슴이 뻐다/(중략)광주에 가서/서울 났지 않은 광주를 만나고 싶은 자/무등을 등에 업은/지산동 골짜기 초가집을 찾거라”(이성부 시인의 ‘광주에 가서’ 중)

지난달 중순, 광주 지산동 옛 딸기밭 아래에 자리한 오지호(1905~1982) 초가에 ‘반가운 손님’들이 모였다. 평소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기는 애호가들이었다. 120년전 에 이어진 정면 4칸, 측면 1칸 전후퇴(前後退) 양식의 초가(광주시 기념물 제6호)는 오 화백이 타계할 때까지 예

술상’이다. 1992년 거장의 송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미술인들의 새로운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오지호미술상은 ‘전통’에 비해 상(賞)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광주시의 사업을 광주예총이 주관하면서 ‘광주시 문화예술상’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국악, 문학 등 다른 장르의 수상자와 함께 시상하다 보니 미술상의 취지를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상금(1500만원)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상장(상패)만 수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미술인들의 창작지원에

오지호 미술상 ‘유감’

큰 힘이 되는 수상작가전이 없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이름 미술상의 후발주자인 대구시의 ‘이인성 미술상’과 비교된다. 대구 출신의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을 브랜드화하고 대구미술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이인성 미술상은 현재 대구시립미술관의 자체사업으로 상의 권위에 맞게 상금 5000만원과 수상기념전을 기획해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물론 미술상의 권위가 상금이나 부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지호 미술상이 국내 미술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의 창작의욕을 키워 주기 위해선 수상작가전 등의 혜택은 필수다. 그러려면 오지호 미술상의 운영을 광주시립미술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제 오지호 미술상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야 할 때다. 광주는 ‘미술의 도시’이므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을 혼을 불태웠던 곳이다.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S갤러리(관장 이명자)의 기획으로 이 곳을 찾은 이들은 생전 오 화백이 ‘불박이’처럼 앉아서 작업했던 캔버스 앞에서 부인 이상일 여사와 손녀 수경씨로부터 그의 치열한 삶과 예술세계를 반추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관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경씨가 얼마 전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 부친 오승운 화백의 ‘오방색의 화가’전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온 걸 알고 문화나들이가 취미인 지인 30여 명을 모임에 초대한 것.

이번 참석자들은 캔버스 밑에 떨어져 얼룩져 있는 수십년 전의 불감들을 보면서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오 화백의 작품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되돌아 보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동시에 한국적 근대화화의 선구자인 오 화백을 기리는 기념사업의 ‘현실’에 대해선 씩씩함을 드러냈다.

그중의 하나가 광주시의 ‘오지호 미



‘신나는 어린이 연극학교’에서 진행한 지난해 발표회 공연 모습.

“여름방학 때 연극 배우고 공연체험 하세요”

극단 토박이 민들레 소극장
29일~8월 10일 ‘어린이 연극학교’

극단 토박이가 운영하는 ‘제26회 신나는 어린이 연극학교’가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문을 연다.

매해 방학기간 중 개최하는 ‘어린이 연극학교’는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토박이 전용극장 민들레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10시 30분에 진행되며, 강의 마지막날인 8월 10일엔 발표회 시간을 갖는다.

교육은 크게 발음·발성훈련, 신체훈련, 집중력·상상력·감각훈련, 연기훈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무용, 음악, 미술(조형, 의상), 건축(장치) 등 공연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1983년 창단한 극단 토박이는 대중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인간성의 전진, 사회와 역사의 진보 등을 목표로 광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공연예술단체다. 대표작으로 ‘금희의 오월’, ‘모란꽃’, ‘새는 앉는 곳마다 깃이 떨어진다’ 등이 있다.

문의 062-222-6280, 010-3625-393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표등록 완료 광주폴리 브랜드 가치 더 높아질 듯

광주폴리가 상표 등록이 되면서 광주폴리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특허청으로부터 광주폴리 상표 등록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17년부터 광주폴리 상표 등록 및 출원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6월 18일 상표법 제 68조에 따라 상표 등록이 결정됐으며 28일 등록이 완료됐다. 상품분류 제41류(공예품 전시회업, 문화 및 예술행사 조직업 등)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광주폴리’가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된 것이다.

폴리(FOLLY)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상표등록 완료 광주폴리 브랜드 가치 더 높아질 듯

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나, 광주폴리는 도시 미관의 역할과 함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1년 광주시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그동안 도시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장식성과 기능성, 역사성 등을 아우르는 ‘광주폴리’ 브랜드 구축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문의 062-608-426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7일~28일 ‘해양여름캠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영)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와 가족을 대상으로 ‘2019 해양여름캠프’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로 운영한다. ‘2019 해양여름캠프’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여름방학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생들이 해양문화유산을 접하고 이를 매개로 가족과의 추억을 쌓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은 총 15팀(가족당 4명 이하, 성인 보호자 1명 필수 참석)을 모집하며 참가 희망자는 전화로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5가족을 선발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1-270-2047/204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스24 ‘한국 문학의 미래 될 젊은작가’ 온라인 투표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는 누구일까?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8월 15일까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예스24 홈페이지를 통해 24명의 젊은 작가 후보 중 최대 5명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등단했거나 또는 첫 소설집이나 장편소설 혹은

시집을 출간한 작가 중 출판사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은 24명이 후보에 올랐다.

후보에 오른 작가는 강화길, 권민경, 김금희, 김동식, 김봉곤, 김세희, 김조업, 박민정, 박성영, 박서연, 박세미, 백수린, 백은선, 손보미, 유계영, 이소호, 임술아, 임지은, 장강명, 정세영, 정영수, 정용준, 정지돈, 황인찬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p>토산철학원</p> <p>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학산운명감정원</p> <p>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p> <p>원장 전홍석 ☎ 010-8003-9000</p>	<p>태극익스프레스</p>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자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본위</p> <p>☎062)222-2424, 011-664-2202</p>	<p>양지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p> <p>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p>무크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p> <p>☎062)370-9258</p>	<p>고흥나루터</p>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치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p>초대화랑</p> <p>동구 중앙로 196빌딩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p>	<p>그집고기</p>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빌딩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p> <p>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p>으뜸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청학철학원</p>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p>진주공방</p> <p>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p> <p>☎010-3906-1718</p>
<p>금강버티컬</p>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틀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국수나무용봉점</p> <p>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p>기담철학원</p> <p>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p> <p>☎062)432-1324</p>